변형 출제 거짓…유인물 그대로 출제했다

시험문제 유출 광주 사립고 거짓 해명 드러나 파문

오지선다 선택지까지 똑같아…유인물 공휴일에 나눠줘 논란
최고난도 5개 문항 100점 만점 중 26점…내신 몰아주기 의혹
광주교육청, 3년간 시험지 분석 속 타교과목 사례 여부도 조사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학교측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000여개의 연습문제 중 일부를 비슷한 유형으로 변형해 시험문제로 출제했다"는 주장과 달리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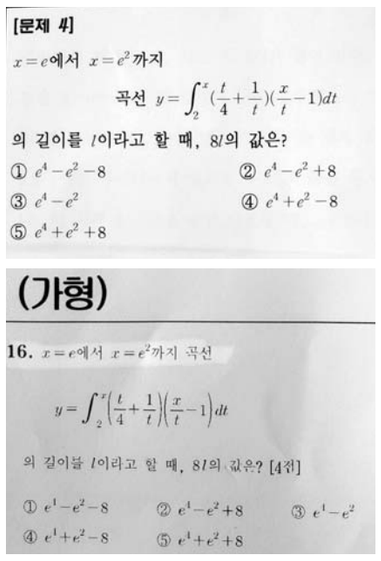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광주시 북구 한 사립고 3학년 기말고사 수학문제(기하와 벡터·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개 문제와 서술형 2개 문제 등 최고난도 5개 문제가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변형 없이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됐던 5개 문항의 질문과 제시된 조건, 숫자는 물론 객관식의 경우 '오지선다'의 선택지까지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1개 문제만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꿨는데, 이마저도 질문과 제시한 조건, 숫자, 심지어 질문의 쉼표 하나까지 다를 게 없었다.

학교측은 그동안 "학기 초부터 제공한 1000여 개 문제 중 일부가 변형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또 이번 감사에선 학교측이 수학동아리 학생 31명에게만 기말고사를 치르기 1개월 전인 5월 중순과 하순 2차례에 걸쳐 3장의 유인물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5개 문제가 정식 시험문제로 출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놓고 교육계 일각에선 기말고사를 한달여 앞두고 해당 문제를 제공한데다, 5개 문항이 최고난도 문제인 탓에 수학동아리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상당수가 풀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위권 특정 학생들의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 4]

$x=e$에서 $x=e^2$까지

곡선 $y=\int_2^x (\frac{t}{4}+\frac{1}{t})(\frac{x}{t}-1)dt$

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8l$의 값은?

① e^4-e^2-8 ② e^4-e^2+8 ③ e^4-e^2 ④ e^4+e^2-8 ⑤ e^4+e^2+8

(가형)

16. $x=e$에서 $x=e^2$까지 곡선

$y=\int_2^x \left(\frac{t}{4}+\frac{1}{t}\right)\left(\frac{x}{t}-1\right)dt$

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8l$의 값은? [4점]

① e^4-e^2-8 ② e^4-e^2+8 ③ e^4-e^2 ④ e^4+e^2-8 ⑤ e^4+e^2+8

지난 5일 광주의 모 사립고교 기말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위)와 이 학교 수학교사가 한달 전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한 유인물에 나온 문제(아래)를 비교한 모습. 질문과 숫자, 오지선다 선택지까지 똑같이 출제됐다.

최고난도 수준의 5개 문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26점에 해당해 내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다 해당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난 기숙사반 상위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가 담긴 유인물을 나눠준 시점도 공휴일인 일요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시교육청의 공휴일 교육활동 금지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말과 휴일 동안 학생들의 교내 교육활동(진로체험·봉사·자율동아리 활동 등은 제외)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자율동아리 활동이었으며, 교육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의 일탈인지,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타 교과목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 보고있으며,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감사관실 2개팀과 교과 전문가인 교육전문직 등 20명으로 구상된 특별감사팀을 꾸리고 해당 고교의 3년간 시험·답안지를 분석하는 등 감사를 진행 중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매뉴얼 정비 논란

반핵단체 "시민 대피 계획 삭제한다니…"

광주시가 시민 대피 계획을 제외한 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반핵단체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행동)은 1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방사능 누출사고 관련 행동메뉴얼 정비 용역 최종발표회'에서 기존 매뉴얼에 있던 시민 대피 계획을 삭제할 것으로 밝혔다"며 삭제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용역 결과 영광한빛원전에서 핵사고가 발생해도 광주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비하다는 분석에 따라 기존의 타 지역으로 시민을 대피시키는 계획이 삭제될 예정"이라며 "오히려 기존의 행동매뉴얼의 의미·내용 면에서 모두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100㎞이상 떨어진 곳까지, 체르노빌 사고는 반경 40~50㎞ 내 지역까지 방사능 영향을 미쳤다"면서 "광주시 광산구는 영광한빛원전에서 35㎞ 떨어져 있으며, 광주 중심지는 40~50㎞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학교서 올들어 세번째 결핵 환자

보건당국 역학조사 나서

전남 학교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결핵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목포 모 고교 3학년 학생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과 접촉한 학생 117명, 교직원 12명 등 129명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해 추가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 도내 학교에선 지난 5월 10일 여수 모 중학교, 같은 달 31일 고흥 모 고교에서도 결핵 환자가 나왔다.

전남지역 학생 결핵 환자는 2017년 14명, 지난해 1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포함해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2개교 2명, 중학교 2개교 2명, 고등학교 15개교 23명 등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7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장동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 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대부분 이 기준을 준수한다. 정씨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4년~6년이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A(여·60)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로 쓰러진 A씨는 뒤늦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누워있던 취객 돕는 척…
금품 훔친 여성 2명 입건

광주 광산경찰은 "거리에 누워있던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7)씨 등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밤 9시 45분께 광산구 한 종합병원 옥외 의자에 누워있던 만취 남성 A(46)씨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인 가운데 한 명이 환자복을 입었다는 A씨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씨 등을 붙잡았다. 김씨 등은 "(A씨가)지갑과 휴대폰 등을 잃어버릴 것 같아 대신 보관해줬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같은 사찰만 7차례 침입
현금 훔친 20대 구속

광주의 한 종교시설에 수차례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야간에 종교시설 사무실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정모(25)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불교 포교원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씨는 한달여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신도·시설관리인의 지갑 등에서 현금 150여 만원을 훔쳤다. 정씨는 종교시설의 경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꾸민 문화공연 "모두가 즐거워"

10일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북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개최한 '제3회 북구 썸머페스티벌'에 참가한 시민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9개팀 9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공연을 꾸미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전남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5년간 매년 10억 씩 50억 지원 받아

전남대학교가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대는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지역선도대학 연계협력형 육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오는 2024년까지 5년동안 매년 10억원씩 모두 50억원을 지원받아 에너지, 스마트농업, 도시재생, ICT 등 지역사회를 선도할 스마트 융합인재를 집중 양성하게 된다. 또 지자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도 발굴해 함께 추진한다.

전남대를 선도대학으로 한 이 사업 컨소시엄에는 순천대·목포대·호남대·동신대가 협력대학으로,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지자체로 각각 참여한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 KDN,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7개가 동참한다.

전남대는 앞으로 이들 참여주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교과+비교과 교육, 현장실습 확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상호 협력해 지역 우수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2022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배우 강지환, 자택서 여성 스태프 성폭행·추행 '파문'

쌍나팔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가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서행.

○…10일 경기광주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일 밤 10시 50분께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여성 스태프 A, B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이날 밤 9시 40분께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탤런트 강지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며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강씨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강씨와 A씨 등을 분리한 뒤 A씨 등으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강씨는 이날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인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강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까 A씨 등이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진술.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3842	1	남구 진월동 870 진월2차한국아델리움 202동 16층 1602호 84.1058㎡	아파트	496,000,000 496,000,000	
2019타경 4692	1	나주시 건재로209, 101동 9층 907호 [대호동,호반아파트] 28.98㎡	아파트	52,000,000 52,000,000	복도식
2019타경 4937	1	나주시 나주천2길58, 5층 508호 [금계동, 수강아파트] 62.52㎡	아파트	35,000,000 3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9타경 2078	1	북구 운암동 1390 159.9㎡[정선희지분5분의1전부]	대	25,133,490 25,133,490	일괄매각,지분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그횟수를1회로제한
		북구 하남대로781번길 11-2 65.45㎡ 지하실 15.86㎡ 부속건물 물치2.64㎡[정선희지분5분의1전부]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9타경 63752	1	북구 무진성길24-14, 104동 1층 101호 [두암동,무등산이스토리] 223.2639㎡	다세대	493,000,000 493,000,000	4층연립주택,대항력있는임차인있음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 15916	1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112-2 342㎡[배성덕지분910분의21전부,나선형,나선주,나미순지분각910분의14전부,나란이,나고은각지분910분의4전부]	전	3,592,729 3,592,729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그횟수를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분묘소재
		동소 112-4 6324㎡[목록1과지분동일]	전		
2019타경 775	1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 873 635㎡ 제시외수목 감나무 묘목 등 약 129주	대	19,730,000 19,730,000	제시외수목포함,울타리및담장포함
2019타경 2498	1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183 66㎡[현황일부도로및일부정원,정확한지적경계측량요함]	대	5,082,000 5,082,000	
2019타경 3279	1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403 823㎡[조명자지분2분의1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그횟수를1회로제한]	대	7,118,950 7,118,950	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함]
2019타경 4654	1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46-1 2281㎡	임야	4,105,800 4,105,800	관리사및컨테이너매각제외
2019타경 61909	1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361 1626㎡ 제시외수목 매실나무 16주	전	22,738,000 22,738,000	수목포함,맹지,분묘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62506 [병합]	4	동소306 3383㎡[김일주지분2/6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그횟수1회로제한]	답	32,703,300 32,703,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63127	1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470-4 3992.2㎡[손만석지분4분의1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그횟수를1회로제한]	답	15,968,800 15,968,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 62162	1	서구 풍암동 1114 1500.2㎡	잡종지	6,523,547,200 6,523,547,200	일괄매각,옥상옥탑및수배전설비포함,2층주차장내냉동고및창고제외
		서구 풍암1로21번길 7 1층1342.26㎡ 2층1342.26㎡ 3층1342.26㎡ 4층1342.26㎡ 5층1342.26㎡ 지하1층48.69㎡	판매,영업,근린시설,주차장		
[자동차,중기]					
2019타경 3637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양산택지로51번길10, C동 303호[양산동] 등록번호:28루1945 차명:투싼 모델연도:2015 사용연료:경유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3송암주차장
2019타경 63783	1	사용본거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신설로2길 5-3, 303호 등록번호:12고0474 차명:SM5 연식:2016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7. 25.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8. 1.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현주